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5.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요한 3,16-18(지극거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나는 하루에 성호경을 몇 번이나 긋나요? 혹여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나,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6/1(월) 30주년 기념 친선 골프대회, 6/7(주일) 본당 30주년 기념 야외미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0주년 기도봉헌과 성경읽기/쓰기 봉헌, 성모님 순례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이해가 어려운 신비 중 하나가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현대교회는 신앙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 삶과 유리된 형이상학적인 사변이나 초월적 신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 자체이며,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인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느님의 구세경륜을 표현하는 가르침으로 알아듣고, 사랑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53항은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다. 세 신들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 곧 ‘한 본체의 삼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세 하느님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데, 이 위격들은 신성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더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는 서로 동일하고, 동일하게 영원하고 전능하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유의깊게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성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하느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느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한, 비록 유일하고 한 분이시지만, 고독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친교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한하고 독창적인 현실 안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께서도 성부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분들 상호 간의 사랑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들 간 일치의 유대이십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이 신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살아내시는 한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